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내년 미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둔화 전망
- WSJ: 9월 미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

[미국 금융]

- WSJ: 금값 계속 상승하는 이유
- Bloomberg: 씨티 전략가, “주식 동력 떨어지고 있다”

[뉴욕]

- Bloomberg: 뉴욕 MTA, 2026년에 예산 적자 90억불 예상

[에너지]

- CNN Business: 휘발유 가격 연속 60일 이상 감소
- CNBC: OPEC 사무총장, “오일업계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”

[물류]

- Bloomberg: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승리 선언 아직 이르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N Business: 구글, 이번 주 비활성 구글 계정 삭제한다
- CNBC: 특수 대형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
- Bloomberg: 마이크론 주가, 두 달 만에 큰 폭 감소... 매출 전망 기대 미흡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US Disinflation Progress Seen Slowing in 2024

내년 미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둔화 전망

- 인플레이션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도 개선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.
- 블룸버그의 최근 이코노미스트 설문 조사 결과 연준이 선호하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내년말에 2.5%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. 이는 지난 달 같은 설문조사에서 예상한 2.4%보다 약간 더 상승하게 되는 속도이다.
- 이는 연준의 목표인 2%에 여전히 못미치는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WSJ: Home Prices Rose to Record in September

9월 미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

- 이같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모기지율이 높지만 판매를 위한 주택 매물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.
- 전국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S&P 체이스 쉐러 전국 주택 가격지수는 9월의 경우 작년 동월에 비해 3.9% 상승했다. 지난달 연율 2.5% 상승률보다 높다. 올해 9월 지수는 지난 1987년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수치다.
- 모기지율이 높아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물 부족이며 기존 소유자들이 현재의 낮은 이자율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Why Gold Prices Are Rising 금값 계속 상승하는 이유

- 금값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 금은 이번 분기 까지 8% 상승했으며 현재 금은 온수당 2천달러를 더 상회하고 있다.
- 예상 인플레이션을 조정 한후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금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. 이러한 실적 수익률이 하락하면 금값은 약세를 보인다. 이런 일이 10월 이후 발생했다. 실질 수익률의 지표인 인플레이션 연동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금은 6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

WSJ 기사

Bloomberg: Sharp US Stock Rally Is Running Out of Steam, Citi Strategists Say 씨티 전략가, “주식 동력 떨어지고 있다”

- 씨티 그룹의 전략가들에 따르면 S&P 500 지수를 1백년만에 최고치인 11월 상승률로 이끌었던 랠리가 이제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.
- 이에 따르면 지난주 선물 흐름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벤치마크 지수의 순포지셔닝이 ‘약간의 약세’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. 나스닥 500선물 포지션은 중립을 보이고 있다.
- S&P 500지수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선물 흐름의 강제 신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뉴욕]

Bloomberg: MTA Faces Potential \$900 Million Budget Gap in 2026**뉴욕 MTA, 2026년에 예산 적자 90억불 예상**

- 이같은 예상은 주와 시의 재정을 분석하는 비영리 싱크탱크Citizens Budget Commission이 발표했다. 이 발표에 따르면 MTA가 당초 약속한 비용 절감 조치는 미흡할 수 있으며 새로 세워질 카지노의 수익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.
-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출 계획은 뉴욕주가 아직 3개의 다운스테이트 카지노에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4년동안 MTA가 아직 실현시키지 못한 약 10억달러의 운영비 절감과 향후 예상한 5억달러의 게임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에너지]

CNNBusiness: Gas prices drop more than 60 days in a row**휘발유 가격 연속 60일 이상 감소**

- 휘발유 가격이 9월에 4달러에 가까운 후에 61연속 감소하고 있다.
- 오늘 화요일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3달러 25센트라고 AAA는 밝혔다.
- 이는 일주일 전보다 5센트, 한달전 보다는 26센트 하락한 가격이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향후 60일동안 반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CNBC: OPEC says oil industry unjustly vilified ahead of COP28 climate talks**OPEC 사무총장, “오일업계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”**

- OPEC의 사무총장인 Haitham Al Ghais가 원유와 가스 업계가 온난화 위기와 관련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.
- 그러면서, 그는 이들 업계가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수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대해 일축했다.
- 이런 비난은 이번 주 목요일 두바이에서 개막되는 UN 기후 변화 회의 (UNFCCC)에 앞두고 나왔다.

CNBC 기사

[물류]

Bloomberg: Biden Declares Victory Over Supply Snarls Just as New Delays, Costs Emerge**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승리 선언 아직 이르다**

-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월요일 인플레이션 완화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, 미국의 공급망이 강화됐음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지했다.
- 그러나, 미시간 주립대에서 공급망 경영학부에서 임시 학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밀러는 아직 축하하기에 이르다고 말한다.
-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 연준의 공급망 압력지수 (GSCPI)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. 밀러는 위의 지수가 상당히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.
- Sea-Intelligence에 따르면, 운송 신뢰도가 2019년의 80%에 비해 64.4%로 크게 하락했다. 또한 2분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, 완전 가동되지 않는 공장의 19.5%가 그 원인으로 원자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, 이는 2019년 7.3%보다 높은 수치이다.
- 또한, 운하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뭄이 파나마 운하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으며,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선박들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CNN Business: Google to begin deleting inactive accounts this week**구글, 이번 주 비활성 구글 계정 삭제한다**

- 수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았던 구글 계정이 이번 주에 삭제될지 모른다.
- 이번 주 금요일부터, 구글이 적어도 2년 이상 비활성화된 계정을 삭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.
- 이 기업은 지난 5월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, 보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. 내부 자료에 따르면, 오래된 계정일수록 보안성이 떨어지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며, 강화된 로그인 절차 같은 최근의 보안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.
- 구글은 8월부터 위 정책의 대상 사용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경고를 보냈다.

WSJ 기사

CNBC: How a specialty vehicle manufacturer is electrifying firetrucks**특수 대형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**

- 보통 대형 차종은 전기차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. 그러나, 미국의 가장 큰 소방차 생산 기업인 Pierce가 이미 시도 중이다.
- 이 기업은 이미 Volterra라는 전기 소방차를 미국 전역에 공급했다. 뿐만 아니라 우편 배송 차량 같은 다른 대형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.
-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, 이 기업이 미국 우체국(USPS)에 전기 배터리 및 내연기관 우편 배송 차량을 각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내연기관 모델의 차량을 언제든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Micron Falls By Most in Two Months After Posting New Outlook

마이크론 주가, 두 달 만에 큰 폭 감소... 매출 전망 기대 미흡

- 미국의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출 전망을 소폭 상향하고, 운영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뒤,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감소했다.
- 9월 28일 이후에 주가가 4.5%나 감소한 것이다.
-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1분기에 조정 매출이 47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는 이전 46억 달러에서 소폭 상승했다.
-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마이크론의 매출 전망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으나, 이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美월가 내년 증시 전망은... 대체로 '상승' 점쳐

월가, S&P500지수 내년에 평균 3.5% 상승 예상 도이체뱅크·BMO캐피털마켓, S&P500지수 5,100 전망

미국 월가의 전략가들은 내년 증시가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7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뱅크오브아메리카(BofA), BMO캐피털마켓, 도이체뱅크는 내년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500지수가 지난해 초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다.

골드만삭스와 소시에테제네랄도 비록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블룸버그 집계 결과 미국 월가는 S&P500지수가 내년에 평균 3.5%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